

학교 학생생활기록부 관리 '엉망'

지난해 전남 모 초교서 졸업생 등 포함 1429명 분 분실 행정실 캐비닛 관리 부실...개인정보 노출 등 2차 피해 우려

전남지역 내 한 초등학교에서 졸업생 등 1000명이 넘는 학생생활기록부를 분실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인적·학적·출결사항 등을 기록하는 학생생활기록부는 개인 정보는 물론 학창시절 생활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2차 피해 등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정훈)는 "A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권력추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가 기각됐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전남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같은 해 4월 24일 오후 5시에 학교 행정실 내 캐비닛에 보관하던 학생생활기록부 1429건을 분실당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A씨에게 견책처분을 내렸으며, A씨는 타지역으로 인사발령됐다.

당시 A씨는 학교 시설관리 담당자가 특별휴가중임에도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며, 중요 문서인 생활기록부 보관 캐비닛의 시건장지도 고장 난 상태였지만,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외부 집입자가 생활기록부를 훔쳐갈 수 있는 여건까지 제공했다는 게 교육청의 징계 사유였다.

이에 대해 A씨는 "시설관리 담당자의 업무대행자 지정은 학교장의 권한이며 담당 직원이 캐비닛 시건장지의 고장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고장을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했다"면서 "특히 절도범행을 보고받고 학교장에게 이를 알렸지만 별다른 지시가 없었다. 월요일 출근해 분실물을 확인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또 무인경비시스템이 작동중이었고 외부 출입문이 모두 잠겨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점, 다른 징계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견책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재판부는 "학생 생활기록부는 학교에서 소속 학생의 인적·학적·출결사항 등을 기록하는 중요한 문서로, 생활기록부를 보관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A씨의 캐비닛 관리 부주의가 하나의 요인이 돼 절도 범행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전남 고교 내년부터 전국 첫 입학금 면제 144개교 2만여명 혜택

전남도교육청이 오는 2018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입학금 면제를 추진한다. 고교 전면 입학금 면제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는 현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 중 하나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조기 실현 차원에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다.

27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18학년도 입학금 면제 대상학교는 자율형사립고인 광양제철고를 제외한 전체 고등학교 144개교다. 전남 도내에서 모두 2만여명의 학생이 혜택을 보게 된다.

도교육청은 조래 개정이 필요한 자율형사립고 광양제철고의 입학금 면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전남 도내 고등학교의 입학금은 최고 1만5900원에서 최저 1만1800원이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2억7000만원의 학부모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입학금 면제는 오는 10월 '전라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2018학년도부터 시행된다.

이점희 재무과장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우리 사회가 실현해야 할 교육 현안"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



“쑥쑥 자라 다시 만나자” 영산강 치어방류 행사가 지난 25일 광주시 북구 용전동 용산마을 앞 영산강 둔지에서 열렸다. 송광운 북구청장과 영산강 어메니티운동 봉사단, 어린이들이 치어 2만여 마리를 방류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새 옷 갈아입은 충장축제

7080 뻘 '추억의 충장축제'로 명칭 변경...모든 세대 공감축제로

광주시 동구가 '제14회 추억의 충장축제'(10월 18~22일) 명칭을 변경한 데 이어 27일 축제 캐릭터 '충장이'·'금남이'의 새로운 버전을 공개했다.

동구는 공식축제명 '추억의 7080 충장축제'가 특정세대와 시기를 대상으로 한다고 판단, '7080'을 뺀 '추억의 충장축제'로 이름을 바꿨다.

그동안 1970~80년대에 초점을 맞췄다

며 올해는 tvN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 등이 인기를 끌고 있는 점을 반영,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로 치를 방침이다.

또한 변화된 콘셉트를 반영해 캐릭터도 새롭게 제작했다. 70년대 교복문화를 반영해 검정색 교복을 입은 남녀학생의 모습을 표현한 기존의 캐릭터에 더해 80년대 문화를 상징하는 청바지, '디스코 바지'

캐릭터와 90년대 문화를 반영한 힙합스타일의 캐릭터를 개발했다.

올해 충장축제는 시대확장형 특화공연 '세시봉'에서부터 90년대 댄스음악공연, 커버댄스 경연대회, '다시 대학가요제', 대형 롤러장, 90년대 물품전시 등으로 구성된다.

아외에 조성됐던 '추억의 테마거리'는 올해부터 실내 테마관 형태로 꾸며 상설 운영할 예정이다.

'별밤캠핑장'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축제 캐릭터 충장이와·금남이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2 해질 19:05 달출 12:07 달몰 23:07

가을 향기

대체로 맑다가 밤에 흐려지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구름많음	21/31	보성	구름많음	19/28
목포	구름많음	23/30	순천	구름많음	21/31
여수	구름많음	22/29	영광	구름많음	21/31
나주	구름많음	19/31	진도	구름많음	23/28
완도	구름많음	22/31	진주	구름많음	21/30
구례	구름많음	18/31	군산	구름많음	21/29
강진	구름많음	20/31	남원	구름많음	18/30
해남	구름많음	20/31	홍산도	구름많음	23/29
장성	구름많음	19/30			

바다 날씨

지역	해상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동~남	0.5	남동~남	0.5~1.0
	남부	동~남동	0.5~1.0	남동~남	0.5~1.5
남해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서부	북동~동	1.0~1.5	북동~동	1.0~1.5
제주	남해	북동~동	1.0~1.5	남서~서	1.0~1.5
	면바다(서)	북동~동	1.0~1.5	남서~서	1.0~1.5

물때

목포	간조		만조	
	시각	수위	시각	수위
여수	11:25	06:15	23:49	18:51
	23:49	18:51	06:32	00:32
여수	06:32	00:32	19:06	13:05

주간 날씨

날씨	29(화)	30(수)	31(목)	9/1(금)	2(토)	3(일)	4(월)
기온	23/30	19/28	20/28	19/29	20/28	19/28	19/28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지진	매우높음
피부질환	보통

E형간염 한해 평균 100명 발생

질병관리본부 실태조사 추진...돼지 가공육 익혀먹어야

질병관리본부는 유럽에서 햄과 소시지 등 E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내에서 E형간염 감염경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E형간염의 발생 규모, 중증도, 감염원, 감염경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E형간염 관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형간염은 법정 감염병이 아니어서 정확한 환자 수와 감염경로가 의료 신고체계를 통해 집계되지는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멧돼지 담즙, 노루생

고기를 먹고 발병한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다. 보건당국은 건강보험 진료통계를 통해 연간 100여명이 E형간염으로 진료를 받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형간염은 E형간염 바이러스(Hepatitis E virus)에 의해 생기는 급성 간염으로, 주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오염된 돼지, 사슴 등 육류를 덜 익혀 섭취할 경우에 감염된다. 15~60일(평균 40일) 잠복기를 거쳐 피로, 복통,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발생한 후 황달, 진한 색 소변, 회색 변 등의 증상을 보인다. /박진표기자 lucky@

개학 맞은 초등학교 주변 일제 안전점검

개학기를 맞아 전국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부터 내달 22일까지 4주간 정부 합동으로 전국 초등학교 6천 곳 주변 환경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 불법 주·정차, 학교 주변 문구점·분식점의 식품 조리 및 위생 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합동 점검단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

속·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을 우선 단속할 계획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탑승 의무 준수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단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많이 배치해 홍보 및 계도,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성매매·유사성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하고 사후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無덤

무덤이 필요 없는 자연장

봄 햇살처럼 아낌없이 베풀었던 당신은
 봉안시설과 무덤보다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이곳이 더 어울립니다.

후손에게 선물을, 이제는 자연장·수목장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6-8(2층)
 ☎ (062) 433-9191

NAVER 광주전남수목장 검색

본 자연장은 아름기도회에서 운영하는 회원들을 위한 종교시설입니다.